

# 신이 없다 말하는 세대에 신을 묻다

라비 재커라이어스 Ravi Zacharias

라비재커라이어스 국제사역센터(RZIM)의 총재인 라비 재커라이어스(Ravi Zacharias)가 지난 5월 19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응답한다 0519” 집회에서 3천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했다. 청년들이 사전에 제출한 고통의 문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등에 대한 질문을 토대로 젊은이들과 진리를 향한 대화의 포문을 열었다. 본 내용은 18일 기자 회견에서 진행된 것을 편집하여 소개한다.

## RAVI,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라

**Ravi Zacharias(이하 Ravi)**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를테면 ‘선과 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요?’ 등 말이죠. 질문은 때로는 스스로에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무신론자에 의해 제기되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하지 않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스스로의 믿음을 의심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질문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에 응답해 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한국에서 진행된 “응답한다 0519”의 목적입니다.

**Ravi** 지금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힘들고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정치를 보면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인류가 찾고 있는 것은 결국 ‘의미’입니다. 어떤 목적이기도 하고 가치입니다.

한국은 이번이 첫 방문입니다. 지난 4년간 50회 이상 인천공항을 지나다녔지만 말이죠. 한국의 자살률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힌두교를 필두로 하여 이슬람교, 불교 등의 많은 종교가 혼재되어 무수한 신이 존재하는 나라인 인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 계급인 브라만이기도 했지요. 유복한 기독교

**WORLDVIEW**

July 2016



## COVER STORY

라비 재커라이어스를 만나다

10

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무신론자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거는 기대의 무게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열일곱 살이 되던 즈음,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삶을 살아갈 가치가 있는지, 인생의 의미라는 것이 없었고 이미 친한 친구들은 자살 시도에 성공했었지요. 서툰 자살 시도로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병상에서 누군가 성경을 주었고 복음을 들려주었죠. 그때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었죠. 스무 살에 캐나다로 이주하여 트리니티국제대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는 네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바로 학문적 풍토, 정치, 비즈니스,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네 영역이 문화를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희의 사역은 이 네 영역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문화를 살펴보죠. 일반적으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질문을 하지만 불신이 있죠. 저희 팀 RZIM(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y)은 여러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느끼고 배운 것은 이런 것입니다. 이 세상 곳곳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이 저희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다가옵니다.

명문 대학이라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옥스퍼드 같은 곳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이 모이고 답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하기도 하고, 죄와 악 그리고 선에 대하여 물어 보기도 합니다. 또한 종교가 왜 이렇게 많은지, 교회는 왜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져있는지, 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만이 진리인지도 물어봅니다. 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우리의 상식과 이성

RZIM(Ravi Zacharias International Ministry, 이하 RZIM)

RZIM은 전 세계 15개국에 흩어져 있는 47명의 기독교 변증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기독교 철학, 세계 종교 등을 주제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강연을 해 왔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질문을 받죠. 성(Sex), 자살, 포르노,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복음으로 답변을 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대답으로 인생이 변화됩니다. 복음은 참 힘이 있습니다.



### 이성의 끝에서 믿음을 찾다

저자 라비 재커라이어스 / 역자 손동민 / 에센티아 / 원제 The End of Reason : A Response to the New Atheists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왜 학문과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가? 왜 신이 없다고 주장한 많은 학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는가? 과학과 이성으로 무장한 새로운 무신론은 그럴듯한 논리로 기독교를 공격한다.

이 책에서 재커라이어스 박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 그리고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며 매우 냉철하고 문헌에 근거한 논리로 무신론자의 주장을 반박한다. 아울러 그는 참된 도덕과 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그 자체가 바로 진리임을 증명한다. 오로지 학문과 이성 매몰되어 그럴싸해 보이는 무신론자의 논리를 순식간에 무력화해 강력하고 분별 있는 해답을 제시한다.

을 사용하여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도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이 그들의 삶의 갈등입니다.

Q. 한국 무신론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존경해도 기독교는 싫다.” 이런 생각이 팽배한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avi** 먼저 무신론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요? 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사실 무신론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과연 진리가 존재하는가?’, ‘옳고 그름, 선과 악의 차이가 무엇인가?’입니다. 무신론의 역사를 보면, 무신론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른 사회적 만행은 어마어마합니다. 무신론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은 도덕적, 절대적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신론은 과학만을 맹신하게 되죠. 과학은 아주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과학자는 ‘실험실 안’에서 실험을 통해 이야기할 수 있을 뿐 진리는 과학을 통해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

요한 가치는 과학으로 규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은 어떤가요? 모세는 613가지의 하나님의 법, 율법을 선포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15가지로 축소시켰고, 이사야는 11가지로 축소시켰습니다. 또한 미가는 3가지, 곧 ‘의를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하나로 축소하실 수 있으셨지만 그러지 않으시고, 두 개의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첫째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모든 율법들이 이 두 가지 계명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계명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또한 반석 같은 첫 계명이 없다면 두 번째는 허공에 떠 있게 되죠.



COVER STORY

라비 재커라이어스를 만나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8절-



즉, ‘하나님 사랑’이라는 반석 위에서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만약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류의 미래는 삭막해질 것입니다. 복음만이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복음을 사랑으로 진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철학이 있다고 할 때, 그 철학이 실천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철학을 실천하는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철학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그 철학을 비판할 때에는 그 철학이 말하는 바를 가지고 논쟁해야 한다.” 복음은 ‘아름다운 진리’입니다. 물론 교회들이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천들이 행했던 선한 일들마저 역사 속에서 지워 버린다면, 이 세상은 어쩌면 더 삭막하고 슬픈 곳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대개 잘 되어 가는 일보다, 안 되는 일에 주목하기 마련입니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균형 있게 기독교와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겠지요.

신이 존재하지 않음을 믿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G.K. 체스터튼-

한번은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방청객은 모두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을 이야기하자 화를 냈습니다. 세시간 정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중 철학을 연구한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박사님이 오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무신론이란 거짓을 믿고 살아 온 저에게 이것은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무신론자가 된다는 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철학적 질문에 답할 수 있기에 그들도 답답해하고 궁금해 합니다.

Q. 교수님께서 특히 무신론자들을 대상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종교와 신(神)들 가운데 기독교의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말 하나요.

**Ravi** 인도에는 3억 3천 개나 되는 신들이 있고, 신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가?’를 물어왔다면, 인도를 비롯한 동양에서는 ‘이 많은 신들 중에 어느 것을 믿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만 배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붓다는 힌두교 문화에서 자랐지만 힌두교의 많은 교리들을 배타적으로 여기고 자신의 철학을 찾았기에 불교가 생긴 겁니다. 회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종교는 배타적입니다. 만약 종교가 배타적이지 않다면 생겨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 자체가 배타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말하면, 나머지는 모두 가짜가 되죠.

그러므로 좋은 질문은 ‘참 진리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기준을 최소한 네 가지 질문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어디서 유래되었는지(origin), 둘째는 의미에 대하여(meaning), 셋째는 도덕(morality), 넷째는 운명(destiny)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이 우리의 세계관을 지배합니다. 네 가지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할 때, 각각의 답이 실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맞아떨어져야 진리입니다. 또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의 상호의미도 연계되어야 각 의미가 적실해집니다. 제가 알기에는 오직 기독교만이 네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고, 상호의미의 적실성까지 포함할 수 있는 유일한 종교입니다.

결혼은 매우 배타적인 행위입니다. ‘내가 당신과 결

신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원을 볼 수 있는 씨앗을 심어 두었다!



**무신론의 진짜 얼굴**

저자 라비 재커라이어스 / 역자 권기대 / 에센티아 / 원제 Real Face Of Atheism

이 책은 '생각하는 자는 믿도록, 믿는 자는 생각하도록' 가르친다. 믿지 않는 자들은 올바른 변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따뜻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집필하였다. 또한, 영적 순례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내부에 떠오르는 의문을 직시하고 성실하게 답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도록 돕는다. 의문이 든다고 단순히 자신의 믿음의 부족을 탓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 논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해야 한다. 또한, 그 과정은 당신이 좀 더 독실하고 성실한 신앙이 되도록 자연스럽게 이끌 것이다.

혼하겠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이겠지요. 체스터튼(G.K. Chesterton)은 하나님께 '왜 단 한 사람과 결혼하라 하셨는가?' 물었죠. 이처럼 진리는 그 의미 자체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진리가 진리다우려면 그 밑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담아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기독교는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행위로 그 신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 기독교는 은혜와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은혜와 용



서', 이 두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Q. 복음을 받아들이면 인생이 송두리째 변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Ravi**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슬픔, 어려움을 안고 삽니다.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마음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럴 수 있는지 묻고 또 묻습니다. 그런 질문들이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큰 문제를 봐야 할 때 그 속에 작은 이슈만을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큰 그림과도 같습니다. 영원이라는 열쇠 구멍을 통해 세상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한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갑니다. 아이에게 의사가 갑자기 오른팔에 주사를 놓는데 매우 아픕니다. "도대체 이 의사가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아이는 또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 엄마가 나를 아프게 한 사람에게 돈을 주지?" 어린아이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상황을 이해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 엄마의 행동은 더 큰 위험에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많은 시인들은 심각한 우울증 환자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많은 노래들과 시를 쓰게 되었지요. 우리가 어려서는 주사 맞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주사가 왜 필요했는지 압니

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사한테 가자고 하는 부모를 신뢰하지요.

**Q. 마지막으로 한국의 크리스천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Ravi** 지금의 시대, 어느 곳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계를 대표할 만한 리더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그의 아버지와 양가 할아버지는 모두 목사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1900년에 죽으면서 '신은 죽었다'는 말과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19세기에 신은 죽었기에 20세기에 가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첫째, 범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미쳐 갈 것이고, 둘째, 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는 죽기 전 13년간 미치광이로 살았고,

20세기에는 1,2차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난 1900년보다 많은 수가 희생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치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좌파와 우파를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잃어버린 것은 바로 '위와 아래'입니다. 만약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우리는 과거와 같이 미래를 잃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그 부르심의 사랑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그날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에 국한된 인생만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가 밝아질 겁니다. 많은 한국의 젊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으면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